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휘황 찬란한 패일을 향하여 걸출함이 전진하는 선군의 내 조국!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계적인 혁명이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의 리상이 천만가지 행복으로 꽃피고 민족의 존엄이 만방에 높이 펼쳐지는 이 위대한 격동의 시대가 펼쳐진것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것이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라는 필승의 락관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끌어오신 회소의 정치원로 이시며 장철의 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민족사적인 사별이다.

혁명적락관주의!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은 혁명적락관에 충만되어 전진하는 혁명이 백전백승의 영웅사사적력사를 어떻게 수놓는가 잘 보여주고있다.

주요한 력사의 폭풍속에서도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로 단 한번의 실패와 좌절을 모르며 승승장구해온 조선혁명,
그 위대한 력사와 더불어 오늘 공화국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우리 나라는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그 위용 온 누리에 떨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과 밝은 미래를 안겨주며 주체혁명위업의 년대기를 승리와 영광으로 광휘롭게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 이는 곧 걸출한 혁명가의 위대한 락관주의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전사들의 광만이 지휘관의 신념에 따라 좌우되는것처럼 인민대중의 락관주의는 지도자의 신념과 배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도 못하던 구명이 있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념과 배경을 그대로 체현하신 천하제일명장 김정일장군님.

미래에 대한 락관으로 승리와 변영의 시대를 펼쳐시어

《조선야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장강 수심상상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닌적 없는 위대한 락관주의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한 나라 혁명의 진도와 생명력은 령도자의 혁명적락관주의에 의하여 좌우된다.
1909년대 전반기 서방의 정객들과 어용신문, 방송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입을 모아 떠들어대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엄숙한 선언이 온 세계를 진감시켰다.

지금 사회주의가 목표를 꺾고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다. 시련은 일시적인것이여 승리는 영원한것이다. 나는 잡다한 사회주의가 기여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고있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지향이고 의지가기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미래는 우리의것이다. ...

인민이 있는 한 그들의 지향이고 의지인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선언은 력사의 어지러운 광풍을 몰아내고 찬란한 패일을 부르는 승리의 기치였다.
우리 혁명사가 있을수 없는 자유를 남긴 《고난의 행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압살해동, 계속되는 흑심한 자연재해, 졸속은 공장을들과 어둠속에 잠긴 거리와 마을들...
혁명의 원수들은 오래지 않아 사회주의조선이 붕괴되리라고, 이것은 시간문제라고 떠벌이었고 세계는 과연 조선이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나갈것인가를 숨을 죽이고 주시하였다.

천만대적이 떴지여 달려들

어도 눈길 하나 까딱하지 않으신 아버지수령님 그대로 백두의 단력을 천공으로 지나신 위대한 정치가, 하늘이 무너지면 그 하늘을 떠받들고서라도 반드시 승리자가 되려는 용맹이 온몸에서 분출하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는것으로 원수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시였다.

하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리라는 우리 장군님의 백절불굴의 선군의지가 온 우주에 깔렸던 빛발처럼였다.

혁관주의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가질수 있는 승고한 사상감정이다.
우리 인민이 준엄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락관으로 이 땅의 검은구름을 영영 밀어내고 행복의 씨앗들을 소중히 심어올수 있는것은 락관주의의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열화같은 사랑의 강정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둠에 잠긴 수도의 거리와 졸속은 공장들을 뒤로 두시고 전진길을 달리실 때 얼마나 마음이 쓰리셨으랴.
하지만 아버지수령님 꽃피워주신 우리의 사회주의생활, 수령님 믿고 가신 우리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지켜주시려 피눈물을 삼키시며 끊임없이 선군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 길은 결코 험한 길이 아니었다. 평정 그 길은 패일의 승리에 대한 확신,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는 길이였기에 우리 장군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사들을 찾아 멀고 험한 전진길을 수없이 넘고

도 넘으셨건 아니던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서 철령과 오성산, 12.12고지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진길에 끊임없이 울리던 아전차발동소리, 초도의 사나운 파도소리가 갖지 않는것은 기여이 원수와 싸워이길 목적의 기개로 이 땅에 백두산홍대바람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게 하여 오날의 이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백두명왕의 위대한 은공을 삼가 잊지 못하는 승고한 감정의 발현이다.

노보라강행군, 삼북철강행군...
천검만검으로 막아서는 시련의 가시덤불길을 끊임없이 헤치시며 희망찬 봄을 가꾸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적들이 그 무슨 《위기》에 대하여 떠들던 때 구월산과 통문대굴, 철보산을 찾으시여 인민의 무로동원인 강성대국의 앞날을 그려보시며 명승지들을 천하결승의 유력지로 꾸릴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락관에 넘친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2007년 40°C를 오르내리는 대소한의 강구우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북방의 어느 한 산기슭에 이르러선 증수행방전소를 찾으시여 경쾌하게 돌아가는 발전기의 동음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우리 식이라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우리는 무엇을 들었던가.
기여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수령님의 영연한 미소이며 이 땅에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 높이 울릴 김일성조선의 창창한 패일을 보았고 수령님의 리상이 꽃핀 강성대국에서 울리게 될 인민의 행사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언제인가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열여놓은 력사의 길이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서 35년전 《광복의 천리길》에 다신 첫 답사길을 열여주시것을 비롯하여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후배대인 학생청년들이 천리길에 깃든 대한수심의 높은 뜻을 따라배워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도록 길을걸음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네 대하여 언급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이 혁명의 천리길에서 사상과 신념으로 다

김정일동지는 고난을 웃음으로 이기는 백두의 명장이라고, 그는 고난이 클수록 높은 사명감을 백배로 가다듬고 강적과 싸워이길 목적의 보검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아간다고 말씀하시였다.

창으로 우리 조국의 오늘을 아버지수령님의 이 위대한 정의를 확증하는 빛나는 현실이다.
위대한 락관으로 변영의 미래를 주름잡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오늘의 경이적인 승리가기에 그 승리의 력사에 대한 우리의 추억은 참으로 뜨겁고 소중하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의 어느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때의 일이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 직장들의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이 공장과 일터를 알뜰히 꾸리고 지렛장의 혁명적혁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수행한 일군들을 돌아보시며 몇시간전 어느 한 려원할 일을 맡고 지지도하시면서는 보신 《가는 길 힘내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에 대하여 다시금 상기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락관과 락관주의가 반영된 훌륭한 구호라고 하시며 몇년이나 이 구호를 되새겨 읽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로동계급의 혁명에 대한 총적성과 락관주의를 그 락관합구소에 이어 다시금 이 공장에서 감행해 나가시던 그이께서는 공장자들에 장쾌하게 울리는 기계동음을 들으며 우리 로동계급의 거세찬 숨결이 저렇게 도도히 맥박치고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한 우리의 사회주의는 무궁변영할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계급과 함께 웃으며 공장을 돌아보고있다고, 가는 길 힘내해도 웃으며 가고있다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패일을 위한 오늘에 사시는 위대한 명왕의 락관의 세계, 시련과 난관을 노래와 웃음으로 이겨내고 승리를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이 그대로 어리어있는 구호 《가는 길 힘내해도 웃으며 가자!》,
명도자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의 결정체인 이 구호는 온 나라에 기록마냥 세차게 나래되고 그 기록아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시련의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언제나 가슴에 안고계시었던 그 간결한 희망, 강철같은 열망이 품성함대로 주렁주렁 현실투 켈쳐지고있는 데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가슴에 박히게 느껴진다.
지구를 막치고 날아오른 인공지구 위성들, 태천발전소, 념원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수물처럼 솟아난 굴지의 발전소들, 청류다리와 금룡2동굴, 천년강자!》라는 구호에 대하여 다시금 상기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락관과 락관주의가 반영된 훌륭한 구호라고 하시며 몇년이나 이 구호를 되새겨 읽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로동계급의 혁명에 대한 총적성과 락관주의를 그 락관합구소에 이어 다시금 이 공장에서 감행해 나가시던 그이께서는 공장자들에 장쾌하게 울리는 기계동음을 들으며 우리 로동계급의 거세찬 숨결이 저렇게 도도히 맥박치고

펼치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락관적인 기상, 우리 조국의 참모습은 또 얼마나 역세고 아름다운것인가.

백두산민족의 승리의 력사는 바로 이렇게 랑만에 넘쳐 도도히 흐르고있다.
백전백승의 력사로 세계정치사에 미증유의 흔적을 남긴 우리 혁명의 앞길에 불멸의 기치가 힘차게 나뭇간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은 우리 장군님과 함께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나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뿌려내린 신념이고 배심이며 미래에 대한 락관이다.
사나운 겨울을 밀어내는 불이 반드시 웃음이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미래에 대한 락관으로 강성대국을 향하여 노도 치며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은 그 무엇으로도 꺾지 못한다.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 가 더 높이 울려라질 승리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새해부터 사나운 노보라를 헤쳐 나가게 하여주시는 장군님.
김일성조선의 밝고 찬찬한 미래를 위해 승고한 애국애민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신념의 길, 락관의 길, 민족찬대변영의 길을 걷기시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끊임없는 현지지도는 이 땅에 아버지수령님과 항일의 념성으로 김정숙어머니의 속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열화같은 총성의 상징이다.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최강자, 혁명적락관주의의 락관으로 앞당겨 오시는 백두명왕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성대국조선의 승천고와 울려 퍼질 그날을 향해 혁명적대고조의 목소리 더욱 힘있게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활명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볼리비아아미민족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라 파스
볼리비아아미민족국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각하
나는 당신이 볼리비아인민의 지지와 커다란 기대속에 볼리비아아미민족국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게 되는데도 관련된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관계가 자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99 (2010)년 1월 22일 평 양

1 면 에서 계속
그는 경애하는 대한수령님께서 주체 14 (1925)년 1월 22일 나라를 찾지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만경화를 떠나 2월 3일 조국광 환골인 포령에 도착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 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수으신 《광복의 천리길》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검은구름이 뒤덮인 조국강산에 민족재생의 서판을 비쳐준 영광의 길이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운을

열여놓은 력사의 길이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서 35년전 《광복의 천리길》에 다신 첫 답사길을 열여주시것을 비롯하여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후배대인 학생청년들이 천리길에 깃든 대한수심의 높은 뜻을 따라배워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도록 길을걸음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네 대하여 언급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이 혁명의 천리길에서 사상과 신념으로 다

혁명이요를 높이 부르며 강의 의지와 정단주의정신을 발 휘하며 행군의 나날에 혁명사적, 혁명사적관찰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책사와 도임들을 활발히 조직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답사행군대원들이 행군을 힘있게 다그쳐 력사의 땅 포령까지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 영광의 보고를 드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답사행군대원들이 결의 도로를 하였다.
트론 자들은 위 대한 대한수령께서 품소 결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열여주시는 편과 답사행군에서 참가하는 기쁨은 끝이 없다고 하면서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혁명의 계승자로 더욱 역세게 자라날것을 다짐하였다.
모임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답사행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기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기를 진두에 모시고 행군 대가발과 붉은기울 휘날리며 중앙시내 학생청년자들로, 근로자들의 열렬한 환송속에 모두 당당히 행군을 시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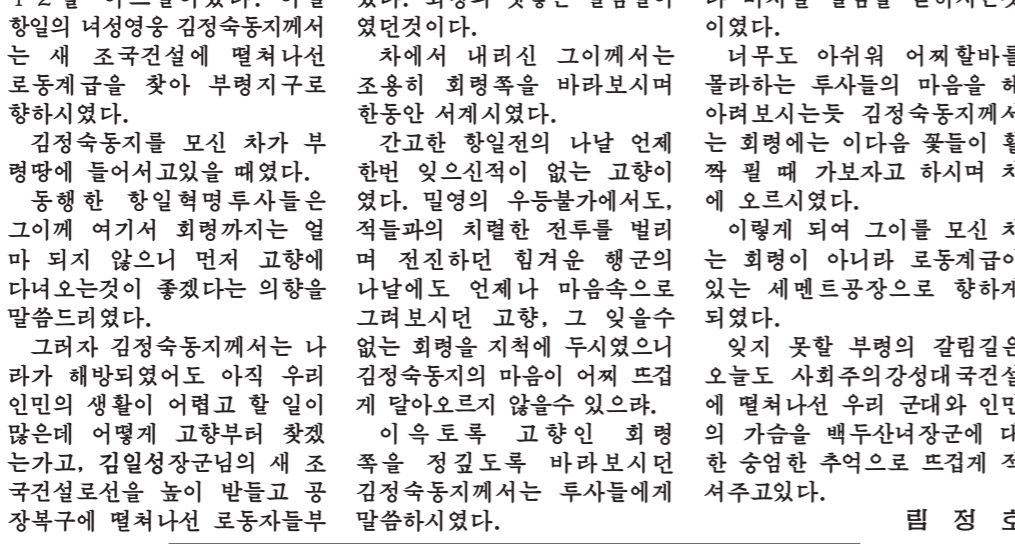
잊지 못할 갈림길이 전하는 사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내가 해방되었으나 정세가 복잡하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자리를 뜨겠는가고 하시면서 그처럼 그리워하던 고향에다가 가지 못하시라고 일가친척을 찾은것도 미루시며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 데 모든것을 다 바치시켰 습니다.》
주체 34 (1945)년 12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항일의 념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을 찾아 부령지구로 향하시였다.
김정숙동지를 모신 차가 부령땅에 들어서고있을 때였다.
동행한 항일혁명투사들은 그에게 여기서 회령까지는 얼마 되지 않으니 먼저 고향에 다녀오는데 어떻겠냐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어디 만나보자고 하시며 부령야 금공장 (당시) 쪽으로 차를 몰도록 하시였다.
부령야금공장의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에게 한번 보란듯이 공장을 부쳐어주고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고 호소하러 간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길로 고무산세멘트공장으로 떠나시였다.
김정숙동지를 모신 차가 고무산세멘트공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르자 항일혁명투사들은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게 하였다. 회령과 잇닿은 갈림길이 었던것이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조용히 회령쪽을 바라보시며 한동안 서서 계시였다.
간고한 항일전의 나날 언제나 한민 잊으신적이 없는 고향이었다. 밀영의 우뚝봉가에서도, 적들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리며 전진하던 힘겨운 행군의 나날에도 언제나 마음속으로 그리보던 고향, 그 잊을수 없는 회령을 지적에 두시였으니 김정숙동지의 마음이 어찌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수 있랴.
이윽도록 고향인 회령 쪽을 정경도록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투사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지금 장군님께서는 새 조국 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끼니도 휴식도 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고향땅부터 찾겠습니까. 나는 여기 일을 하루하루 끝내고 평양으로 올라가 장군님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
몸결에도 그리던 고향에 들리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시였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듯 아버지수령님의 건국로선을 실현하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실 결심을 굳히시는것이였다.
너무도 아쉬워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투사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시는듯 김정숙동지께서는 회령에는 이다음 꽃들이 활짝 필 때 가보자고 하시며 차에 오르시였다.
이렇게 되어 그이를 모신 차는 회령이 아니라 로동계급이 있는 세멘트공장으로 향하게 되였다.
잊지 못할 부령의 갈림길은 오늘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백두산대강에 대한 숭엄한 추억으로 뜨겁게 적셔주고있다.

림 정 호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의 승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고있다. -백두산일명혁명전진지에서-

제힘을 믿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수공직물공장은 비록 크지 않으나 소문없이 큰일을 하고있는 자랑많은 일터이다.
일마진 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항일혁명시절들의 투쟁정신이야말로 이곳 공군들과 근로자들이 만났을 지어내고 끊임없는 비약에 더속추진하는 근면비열이라는것을 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혁명적인 투쟁기공과 희생정신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입니다.》
산뜻한 정문, 정갈하고 번듯한 구내, 아담하고 규모있는 공공건물, 가락맞게 울리는 공중전송의 동음...
첫 순간부터 신선한 기운이 온몸을 휩싸는 공장이였다.
강일남지배인은 공장이 깨끗하게 꾸려졌다는 우리의 말에 이제 겨우 시작이요, 그와 혼연히 대담한것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 공장이 겪은 시련은 이루 다 헤아

릴수 없었다고 한다. 자체와 로력이 부족했으므로 생산이 자주 중단되었고 여러가지 난문제가 제기되었다. 애로만을 탓하며 언제까지나 앉아공중수 없는 일이었다.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밑에 온 나라가 고난을 막으며 용감하게 일떠서던 여러해 전에도 모자라던 공장은 한 자리에 모였었다.
지배인이 가슴을 팡팡 두드리며 헤치듯 하는 말이 좌중을 흔들었다.
《우리 공장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분공장체계의 첫 시범단위로 꾸려주시 영광의 일터가 아닙니까. 조건이 어렵다고 하여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이라고 말할수 있었습니까!》
일군들의 심장은 하나로 뉘뉘었다. 종업원들의 힘을 믿고 생산활동을 위한 사상기풍을 백두명왕의 명기창처럼 꾸리고 부수품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전투를 벌여였다.
종업원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념성들도 집안살림보다 공장살림에 더 마음을 기울이며 일터를 떠날줄 몰랐다. 박정관, 장영희, 김해숙작업반장들이 돌격전의 앞장에 섰다. 직포공들이 하루 수일마다 맞는 가리리를 오가며 생산을 즐기게 밀고나갈 때 준비작업반과 완성작업반의 념성들도 혁신창조로 줄달음쳤다.
공창에서는 년간계획을 넘쳐하는 속에서도 생산문화, 생활문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화합을 위한 전투를 립체적으로 전개하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 화합에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내세운 목표는 백두산위인들의 명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린 일터를 하나의 위대성교양마당으로 전변시키는데있었다.
혁명사적유적을 견뎌하는데 요구되는 거대한 화합력을 윤반해오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청사건설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기 위한 개건공사에 불이 번쩍나게 추진되었다. 공공건물의 창문들이 개조되고 울타리가 번듯하게 일떠섰으며

정문도 시원하게 내고 한층더욱 멋들어지게 꾸려놓았다. 자체로 장식블록을 제작하고 식당건은 물론 계절장을 비롯한 사무실의 구들상을 비롯한 나그레 갖추어놓던 나날은 또 얼마나 흥에 겨웠던가. 생산이 활성화되고 공장이 전진인적 뜰게 면모가 일신되니 종업원들의 사기는 배배해졌다. 루정의 노래가 높이 울리고 온 공장에 혁명적락관주의가 팽 차넘쳤다.
지금 이 공장을 찾은 사람들은 혁명사적유적지와 청사안의 곳곳에 전시되어있는 수십점의 직판물들, 손색없이 꾸려진 연혁소개실을 돌아보면서 인민들의 일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커다란 시혜를 바치신 절세의 위인들의 열도업적을 가슴 뜨겁게 체득하고있다.
그는 이것이나 제힘으로 이루어놓은것이기때 공장이 제점보다 크고 보람 있고이다 이곳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충천한 기세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떨쳐나선 수공직물공장의 오늘도 조지만 메일은 더욱 밝고 창창할것이다.
본사기자 백 룬

수리의 신심드높이 올해의 전진길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남덕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이 세차게 나래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처럼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도 언제나 규률있고 절도있게 학습하고 생활하였습니다.》
4대선행부에서는 공경과 농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높은 생산적창양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벌어나가야 한다는 새해공포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았을 때 탄광일군들의 생각은 하나로 합쳐졌다.

수리의 신심드높이 올해의 전진길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남덕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이 세차게 나래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처럼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도 언제나 규률있고 절도있게 학습하고 생활하였습니다.》
4대선행부에서는 공경과 농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높은 생산적창양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벌어나가야 한다는 새해공포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았을 때 탄광일군들의 생각은 하나로 합쳐졌다.

수리의 신심드높이 올해의 전진길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남덕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이 세차게 나래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처럼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도 언제나 규률있고 절도있게 학습하고 생활하였습니다.》
4대선행부에서는 공경과 농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높은 생산적창양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벌어나가야 한다는 새해공포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았을 때 탄광일군들의 생각은 하나로 합쳐졌다.

수리의 신심드높이 올해의 전진길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남덕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이 세차게 나래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처럼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도 언제나 규률있고 절도있게 학습하고 생활하였습니다.》
4대선행부에서는 공경과 농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높은 생산적창양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벌어나가야 한다는 새해공포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았을 때 탄광일군들의 생각은 하나로 합쳐졌다.

학습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남 덕 탄 광 에 서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도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 사명관동지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방침을 무조건 철사관철한 항일혁명투사들처럼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 탄부들의 가슴속에 결사관철의 정신을 깊이 심어준다.
탄광당조직에서는 학습계획을 면밀하게 세웠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학습감사,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그들이 여러 계계를 통하여 탄부들속에서 공업사설의 진수를 깊이 이해해 주도록 하였다. 그래서 탄부들모두가 올해전투의 첫시작부터 선군시대 로동

계급의 정신력을 적극 발휘하도록 하였다.
그이로서나 혁명적인 학습기풍이 세차게 나래졌다. 어느날 한 깡깡에 탄부들은 작업의 엄참에 탄부들에게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들과 화학공장들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생산보장하고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는 공동사설의 구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고 결부하여 감동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는 지금 우리에게 모든것이 부족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

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모두가 기술학습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떠벌이 주고있다.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너도나도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선 결과 탄광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석탄생산에서도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되고있다.
이처럼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올해에 다시한번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올 수 높은 열의를 안고 언제나 석탄산업을 위한 충고고리들을 정확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새해전투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 가고있다.
김 철 혁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

혁명적대교조의 앞장에 설 불같은 열의

평양시안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 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련이 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한몫 담당할 드높은 열정과 만만한 자신심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자!

모든다 당에 드리는 로력적성으로 당에 10월의 광장에 자랑스럽게, 떼떽하게 들어서자!

공장내에, 현장의 곳곳에 게시된 구호들과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전투적인 노래소리, 새해공동사업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공장로동계급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표출하고 고조시키고있다. 공장정문앞의 커다란 속보판에는 첫 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한 혁신자들의 자랑찬 투쟁성과를 보여주는 소식들을 소개하여 김철

로동계급의 호소마태 대교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로동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 주고있다.

들이켜보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국적인 전환의 해, 번이 난 지난해에 이들은 얼마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자랑스럽게 달려왔는가.

지난해 1월, 찬바람부는 대소한의 강추위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없는 감격과 격정속에 맞이하였던 이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대회원 생산공정들과 공장주년을 돌아보시며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를 그처럼 높이 평가해주시던 그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더 높은 비탄실생산성과로 보답하자고 즐거차게 달려온 이들이었다. 모든 직장들에게는 최고 생산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으로 뛰어넘어지고 150일 전투, 1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전례없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대로 현대화를 더욱 훌륭히 실현하는 올해에 더욱 좋은 비탄실을 더 많이 뽑아내리라!

모든 면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 백두산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가리라. 이런 충정의 마음안고 첫

진군나팔소리를 힘있게 울린 공장의 일군들이다. 기대마나 만가동의 동음을 울려가고있는 조사공들속에 들어간 일군들은 참신한 화신식경제성동과 능숙하고 치밀한 경영비율로 대교조의 열의를 높여 비탄실생산에서 전례없는 대혁신을 불러오고있다.

새해 첫 전투부터 공장의 그 어느 일터에서나 새 기록이 창조되고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직장장 직장장이, 작업반과 작업반들이사회의 경정의 불길이 세차게 타면 지고있다. 사회주의 경쟁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매일, 매 시각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이룩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직장장 직장사동무를 비롯한 3직장의 종업원들은 비탄실의 집에서도 생산량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첫 전투부터 매일 달려진 비탄실생산계획을 150%이상 체제까지도 성취하지 않는 조사공들이 어찌 희망, 리정속, 김정향동무들만인지는가. 갖가지 치술대회를 하면서 승배기기로 일터리를 폭풍 내는 배정심, 로순속 작업반원들의 투쟁이야기는 들을수록 감동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총속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없이 보람찬 로동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일을 해도 다 하고싶고 지혜와 열정을 다 쏟아부으고싶은 심정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이런 격정넘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얼마나 진실한 조사공들의 마음인가!

바로 이런 뜨거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령군속도에 발걸음을 맞추고 어머니날을 위해 심장을 바쳐가고있다. 오늘도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병사처럼 투쟁의 감동을 삶을 뜻피워가고있는 제대군인들의 모습도 볼수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후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높은 리상과 포부를 안고 전방적직장으로 달려왔다. 지난해 같은 연말 또는 그 이상으로 전승을 받고서도 기대를 잠깐 저어했을 제대군인들이 한주일만에 척척 기대앞에 섰다. 그들은 밤낮이 따로없이 파란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기 위해 창조의 구슬땀을 흘려가고있다.

생산정성화의 큰 문을 열고있는 3개의 소년작업반을 제대군인들이 통솔로 맡아나섰다. 작업반원들인 정명철, 김성해, 립정봉동무들은 혁명적군정신으로 어렵고 힘든 일에 서로서로 어깨를 들이밀고 있다. 언제나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며 작업반의 거울이 되

고있는 그들이다.

사회주의경정의 불길속에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는 선구자들, 인민생활대교조의 주인공들은 공장의 그 어느 일터에 가보아도 쉽게 만날수 있다. 김준실동무가 직장장으로 일하는 1직장에서는 천리마대교조시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수많은 조사공들이 자라나고있다. 직장적으로 소문난 단위원 3직업반 1교대를 책임지고 일하던 김금옥동무가 맡았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의 남다른 마음은 누구도 몰랐다. 다른 교대로 옮기던 날 그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처럼 달려가자 아니라 실현으로 땅을 받드는 대교조의 위훈자가 되리라.)

이런 불같은 열정으로 가슴을 끓이며 그만이 아닌 온 직장, 아니 온 공장의 종업원들이 혁신의 열의를 빛내기 위해 창조의 구슬땀을 흘려가고있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과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더 높은 비탄실생산성과로 오늘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으며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보무당당히 전진해가고있다. 본사기자 명훈속

실종이 된 직장을 더 많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생활문제부터 하루빨리 풀어야 하는 인민들이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선교 편직공장에서 새해 첫 전투부터 계획보다 1.8배의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서둘러 공장을 찾았다.

공장내에 들어서니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교조적열의에서 대교조의 위훈자가 될 결의드높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주인공들을 소개한 속보판들이 먼저 우리의 눈앞에 안겨왔다.

전진과 비약의 승결과 놀라운 모습이 휘둘러지는 혁신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다. 선교 편직공장을 둘러주니 우리들의 눈앞에 안겨왔다.

《올해공동사업에 이어 김철로동계급의 편직을 받아들인

선교 편직공장을 찾아서

우리 공장 로동자들의 혁명적 열의는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편직물 생산을 위해 종업원 모두가 첫 진군에서부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습니다.》

올해의 승리를 락관하는 일군의 신심이 넘쳐나는 열풍을 돌리면서 우리는 직조직장현장에 도착하였다. 넓은 작업현장에 줄지어 늘어선 대환기들의 고르로운 동음과 함께 빨간 등이 반짝이는 기대대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재빠른 동작으로 실실을 하는 기대공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마냥 가볍게 해주었다.

《새해 첫 전투부터 모든 생산자들이 성수기 나시 경쟁적으로 실적을 올리고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를 만난 직조장 1작업반장 박철용동무의 말이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붉은 줄이 짙은 오렌 사화주의경쟁도표가 우리의 시야에 안겨왔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줄지어 늘어선 대환기들마다에서 연속 감기여지는 편직선통리가 보기 좋게 두들려왔다. 동행한 일군은 직조장장뿐 아니라 가공직장, 염색직장에서도 달려진 하루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

혁명의 열풍을 더 많이

서 정성화할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척되고 형태가 새로운 제품들이 련속 개발되게 된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비약의 승결을 놀리는 들끓는 현장들 돌아볼수록,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열의가 더욱더 높고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오늘의 투쟁이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온 우리 수령님의 념원을 뜻피우려는 길이고 우리 인민을 강성대국에서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가는 길이기 에는 년초부터 대교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고 있는것이 아니라.

격동된 심정을 안고 다시한 번 들끓는 현장들을 둘러보는 우리의 눈앞에 헤엄치듯 피진 실이 오물들이 대환기의 바늘을 타고 울렁이 내리는 모습이 의미심장하게 안겨왔다.

《그 하나하나의 실이오리마다가 온 나라에 골고루 퍼져가는 위대한 사랑의 해살, 더 좋은 앞날을 예고해주는 희망의 빛날처럼 느껴졌다. 흥분된 마음을 안고 공장을 떠나서 우리의 눈앞에 색깔고운 모양고운 여러 가지 편직물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리철옥

평양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새겨진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에서 갖가지 어린이 식료품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공정 현대화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다그쳐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식료품공업부문에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식료품을 공급적 방법으로 제때에 가공하며 식료품공업에서 위생보장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였습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는데 대한 공동사업은 흥분된 심정으로 받아들인 공장의 일군들은 어린이식료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데서 찾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발전전력을 바로세우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를 발휘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공장에서는 지난해 각 직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성과에 토대하여

현지 혁신의 불바람

평양일용품공장 치술직장에서

평양일용품공장 치술직장에서는 우리는 혁신의 소식을 전한다. 인민생활대교조의 열풍인양 현장은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경공업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였습니다.》

현장을 객 객을 치술생산설비들이 만가동의 동음을 기계차게 울린다. 갖가지 치술대회를 단번에 수립계획 척척 이어나는 사출기들, 기계대들이 씩이 강모사를 씌어가는 식모기들...

현장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른 강모사생산흐름선이 기계소리가 동음을 시작한다. 현대적인 설비들이 쭉 늘어선 현장의 여기저기에서 열정의 불길을 가세하고 있다. 유압장치에 반원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어느새 원로공들에게 인로가 정확히 공급된다. 이 이 흐름선을 타고 압출된 원료가 팽창장치를 거쳐 다음공정

현지 혁신의 불바람

평양일용품공장 치술직장에서

에 들어간다. 1차, 2차인정기에서 인정된 강모사가 열처리공정을 거쳐 제품으로 완성되는 흐름식공정이 좀처럼 우리의 눈길을 놓아주지 않는다. 매 흐름공정마다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착각 맞출려나가는것이 참으로 불안하다.

《생각하면 가슴이 벅칩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우리들께 인민생활대교조의 주인공들이라는 시대적책임감을 자각하고 더 훌륭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것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편지에 화답하여 이렇게 불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안고 열의 일해간다는 작업반장 박중동동무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가슴 뭉클하게 한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커다란 권투틀에는 파아란 강모사가 보기 좋게 감겨 있었다. 이윽하여 유압장치에 이층된 반제품이 잠간사이에 완제품으로 줄줄이 쏟아진다.

《오늘 계획 오전 중에 수형! 교대가 180% 수행

현지 혁신의 불바람

평양일용품공장 치술직장에서

할 목표! 어느새 이런 전투속도가 나붙는다. 숙련된 솜씨로 기대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운전공들을 가리키며 저 동무들이 바로 어제날의 총련 병사들이라고, 모두 고공기능공이 되어 인민생활대교조의 주인공들로 성장했다고 작업반장포비서 박광문동무가 궁지에 넘쳐 자랑한들만이다.

유중한 사출기들을 척척 다루며 하루계획을 넘쳐하고도 성취하지 않는 사출공들인 박병주, 김성애, 리정일, 흥현철동무들도, 어제날의 새 기록을 오늘의 평범한 생산성과로 이어가는 김철로동계급의 끝없는 제대군인들도 올해에 다시한번 대비약, 대혁신을 안아올 만만한 자신심에 넘쳐 있었다. 그렇다. 인민생활대교조주인공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땅이 결실하면 우리는 한나는 철석의 신념을 지닌 이런 로동계급의 힘찬 대교조를 위훈을 떨치며 강성대국대문을 향하여 기계소리가 들린다. 본사기자 명훈속

평양방직기계공장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수여

평양방직기계공장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이 수여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공장은 지난해 기간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기대를 알뜰히 관리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여 말까지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방직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여식이 21일에 진행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씨가 전달한 다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설비관리와 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방직기계공장 선반공 박형에게 공훈26호기대공로훈장, 부원 방영남에게 로력훈장이 수여되었으며 많은 기대

공들과 일군들이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수여식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로동자들은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당의 로동업적을 길이 빛내게 하고 대교조의 선군속도로 방직기계생산업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농사차비로 들끓는 농촌을 적극 지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 농사일을 도맡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농촌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업생산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새해전투 첫날에 수만 t의 질좋은 거름을 협동농에 실어내는데 이어 기계로 농촌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 지도부에 도에서는 올해에 농촌지원사업에 도를 통이 크게 벌리기 위한 작전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도안의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농촌지원과제를 정확히 하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게 하는 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농촌지원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특히 거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도록 하고 거름원천을 찾아 거름생산을 높이기 하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능률적인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지체없이 협동농에 실어내게 하였다. 그리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농사차비로 들끓는 농촌을 적극 지원

벌에 실어냈다.

관산군, 의주군에서는 질 좋은 거름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 트랙터로, 말구치 등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실어내면서 농촌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정주시, 구장군, 윤천군에서도 지원원천을 적극 탐구하면서 농촌지원사업을 잘하고 있다.

통천군, 선천군에서는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힘을 쏟고 있는 한편 농촌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있다. 도인민위원회, 도전선전화국, 도국도환경보호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시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이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성의껏 마련한 질 좋은 거름과 농촌지원사업을 실고 협동농장들에 나가 농사차비를 다 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을 도와주었다. 도협동수선관리위원회, 도통계국, 도인민병원에서는 중노동기구를 많이 마련하여 평안북도에서 농촌지원사업에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깊이 해협동농장에 보내주었다.

특파기자 김기도에서

제화 흐름선을 생산보장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새 시대를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평양시안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큰 제화 흐름선을 만들어냄으로써 질 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여러 신발공장에 도입된 기계 흐름선을 신발의 질과 생산능력을 높여나가는 데서 크게 은을 내고있다. 백산현

제화 흐름선을 생산보장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새 시대를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평양시안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큰 제화 흐름선을 만들어냄으로써 질 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여러 신발공장에 도입된 기계 흐름선을 신발의 질과 생산능력을 높여나가는 데서 크게 은을 내고있다. 백산현

평안북도에서는 거름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 트랙터로, 말구치 등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실어내면서 농촌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정주시, 구장군, 윤천군에서도 지원원천을 적극 탐구하면서 농촌지원사업을 잘하고 있다.

통천군, 선천군에서는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힘을 쏟고 있는 한편 농촌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있다. 도인민위원회, 도전선전화국, 도국도환경보호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시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이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성의껏 마련한 질 좋은 거름과 농촌지원사업을 실고 협동농장들에 나가 농사차비를 다 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을 도와주었다. 도협동수선관리위원회, 도통계국, 도인민병원에서는 중노동기구를 많이 마련하여 평안북도에서 농촌지원사업에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깊이 해협동농장에 보내주었다.

특파기자 리혁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유색금속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 단천체련소에서 — 본사기자 김중훈 찍음



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평양방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장철 일찍음

《우리 민족끼리》는 6. 15통일시대의 민족정신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2012년에 강성대국건설목표를 기어 달성하기 위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 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한 현실에서 통일강성대국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년이 되는 올해의 공동사설은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에 자주통일열망과 의지를 더욱 뜨겁게 부여주고있다.

올해 공동사설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6. 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채택되고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전진하여 온 지난 10년간은 북남공동선언들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이며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 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이고 유일무이한 리념이라는 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남공동선언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조항이 기본입니다.》

6. 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로써 자주통일시대의 민족공동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 한다는것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국통일외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온 민족의 단합된 힘을 발동하여 자주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끼리》는 6. 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이다.

《우리 민족끼리》정신은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외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민족애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정신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북남관계문제도 조국통일문제도 다 북과 남이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철저한 민족자주정신이다. 민족자주는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해결의 핵이며 기초이다.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는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게 되면 만사를 그르치게 된다. 민족내부문제는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것이 바로 6. 15 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정신의 근본요구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6. 15 통일시대의 민족단합의 정신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필수적전제로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대단결에 있다.

《우리 민족끼리》정신에는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실현해야 하며 전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한다는 리념의 반영인 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구현되어 있다.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따라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투쟁전선에 굳게 결속되게 될 때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결정적전면이 마련되게 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다.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자주적평화통일의 기본담보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특정한 그 누구의 리념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온 겨레가 가슴속에 소중하게 새겨안은 전민족적인 리념이다. 이리하여 의의 반세기이상 굳게 단결되어 온 분단의 장벽에 파열기가 뚫리고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서게 되었으며

북남대화와 협력사업,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이 활발해지는 등 민족자주사면들이 이룩되었다. 이것은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따라 화해하고 단합하며 협력해나간다면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국통일운동실천에서 민족자주정신, 민족단합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문제와 조국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자주정신, 단합정신을 간직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나 외세의존이나 하는 것은 통일과 분열의 필경을 가르키는 시금석이다.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바로든 통일애국자이고 그 정신을 부정하면 반동분자이다. 이렇게 흑백을 명백히 가르고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부정하면서 운운하는 《대화》와 《관계개선》은 우물쭈문 민족의 통일념에 대한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조국통일을 위한 길로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가르키는것과 같은 반민족적행위에 계속 매여달릴수도 없다.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옹호하고수행과 리행해나가는 실천투쟁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력을 높여 발휘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우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대행진에 박차를 가함으로 새 6. 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을 온 세상에 높이 떨쳐야 할것이다.

모든 조선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정신력을 높이 발휘할 때 그 힘은 누구도 당할수 없을것이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기업가, 종교인 등 민족의 모든 성원들은 소속과 처지의 차이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력으로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 리행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6. 15 공동선언발표이후의 지난 10년간의 력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력으로 안팎의 분열주의세력들을 제압하여야만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외업의 진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는 반통일행위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완강하고 증단없는 투쟁으로 그것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안팎의 분열주의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의지는 지금 더욱 백배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로 계속되는 투쟁의 불길로 타탄되고있다.

민족자주통일의 대강인 6. 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있고 《우리 민족끼리》정신으로 가슴 배운다는 해대의 온 겨레의 단합된 투쟁이 있어 자주통일외업의 실현은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우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대행진에 박차를 가함으로 새 6. 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을 온 세상에 높이 떨쳐야 할것이다.

근원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단을 내리야 한다

로씨야고통련 성명 발표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 성명을 지지하여 1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국정부의 성의있고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1990년대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들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 《조미기분합의문》과 9. 19공통성명과 같은 중요한 쌍무 및 다무협약들이 채택되었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합의들은 리행이 중도반단되었기나 통례로 뒤집혔고 이 기간에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은 줄어들었다 아니라 반대로 더 늘어났으며 따라서 핵억제력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제반 사실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다는 그 어떤 문제도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성명을 위협하는 미국을 단죄

조국통일법민족련합회 남측본부가 16일 논평을 발표하여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책동을 단죄하였다.

논평은 북이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자들에게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력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리고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부추기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강력한 반미항전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논평은 밝혔다.

논평은 북의 평화적인 위성

발사에 대해 류제없는 차별조치를 취한 미국이 제재라는 군화발을 치우지도 않고 6자 회담에 나와 있다고 강요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

진 체 민 중 이 평 화 를 지 톰 고 켜 진 정 도 에 발 췌 정 도 에 광 복 하 고

남조선에서 북남관계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우리를 심히 자극하며 대결을 격화시키는 불순한 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모도권파와 같이 지난 1월 1일 《민간단체》의 말을 쓴 《대북전단보내기 국민련합》은 경기도 파주시 립천사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는 불순한 내용으로 일관된 수신판장의 배라를 날려보냈다. 김화군일대와 장풍군일대, 금강산관광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도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대화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 《조미기분합의문》과 9. 19공통성명과 같은 중요한 쌍무 및 다무협약들이 채택되었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합의들은 리행이 중도반단되었기나 통례로 뒤집혔고 이 기간에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은 줄어들었다 아니라 반대로 더 늘어났으며 따라서 핵억제력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제반 사실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다는 그 어떤 문제도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성명을 위협하는 미국을 단죄

조국통일법민족련합회 남측본부가 16일 논평을 발표하여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책동을 단죄하였다.

논평은 북이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자들에게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력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리고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부추기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강력한 반미항전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논평은 밝혔다.

논평은 북의 평화적인 위성

발사에 대해 류제없는 차별조치를 취한 미국이 제재라는 군화발을 치우지도 않고 6자 회담에 나와 있다고 강요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

진 체 민 중 이 평 화 를 지 톰 고 켜 진 정 도 에 발 췌 정 도 에 광 복 하 고

남조선에서 북남관계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우리를 심히 자극하며 대결을 격화시키는 불순한 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모도권파와 같이 지난 1월 1일 《민간단체》의 말을 쓴 《대북전단보내기 국민련합》은 경기도 파주시 립천사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는 불순한 내용으로 일관된 수신판장의 배라를 날려보냈다. 김화군일대와 장풍군일대, 금강산관광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도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조국통일, 평화번영

대한 강렬한 지향과 의지로 총만된 통일애국세력이 분열주의세력을 압도하고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과 짝을 수 없는 애국의 의지로 과감히 박차며 힘차게 투쟁해 온 우리 겨레는 새해를 맞이하여 조국통일외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통일기원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조국통일은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이룩해야 하는 강건한 위업이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외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면 분열주의세력에 비한 통일애국세력의 우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난해 분열주의세력의 도전은 매우 심오하고 악랄하였는데 그것은 6. 15 이후 전례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로 하여 북남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그에 대한 내외의 우려도 매우 컸다.

하지만 조국통일운동은 결코 담보하지 않았다. 분열주의세력이 악랄하게 책동하면 할수록 내외의 의지력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였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법민족련합 남측본부, 실천련대, 진보련대, 민주로동, 《한선군》, 《선교조》 등 국제 단체들과 인사들이 당국의 반통일책동과 파썸폭압속에 굴하지 않고 변복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남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조국통일은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이룩해야 하는 강건한 위업이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외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면 분열주의세력에 비한 통일애국세력의 우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난해 분열주의세력의 도전은 매우 심오하고 악랄하였는데 그것은 6. 15 이후 전례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로 하여 북남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그에 대한 내외의 우려도 매우 컸다.

하지만 조국통일운동은 결코 담보하지 않았다. 분열주의세력이 악랄하게 책동하면 할수록 내외의 의지력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였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법민족련합 남측본부, 실천련대, 진보련대, 민주로동, 《한선군》, 《선교조》 등 국제 단체들과 인사들이 당국의 반통일책동과 파썸폭압속에 굴하지 않고 변복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남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애국력량의 연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남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조국통일은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이룩해야 하는 강건한 위업이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외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면 분열주의세력에 비한 통일애국세력의 우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난해 분열주의세력의 도전은 매우 심오하고 악랄하였는데 그것은 6. 15 이후 전례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로 하여 북남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그에 대한 내외의 우려도 매우 컸다.

하지만 조국통일운동은 결코 담보하지 않았다. 분열주의세력이 악랄하게 책동하면 할수록 내외의 의지력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였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법민족련합 남측본부, 실천련대, 진보련대, 민주로동, 《한선군》, 《선교조》 등 국제 단체들과 인사들이 당국의 반통일책동과 파썸폭압속에 굴하지 않고 변복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남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조국통일은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이룩해야 하는 강건한 위업이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외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면 분열주의세력에 비한 통일애국세력의 우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난해 분열주의세력의 도전은 매우 심오하고 악랄하였는데 그것은 6. 15 이후 전례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로 하여 북남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그에 대한 내외의 우려도 매우 컸다.

하지만 조국통일운동은 결코 담보하지 않았다. 분열주의세력이 악랄하게 책동하면 할수록 내외의 의지력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였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법민족련합 남측본부, 실천련대, 진보련대, 민주로동, 《한선군》, 《선교조》 등 국제 단체들과 인사들이 당국의 반통일책동과 파썸폭압속에 굴하지 않고 변복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남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조국통일은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이룩해야 하는 강건한 위업이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외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면 분열주의세력에 비한 통일애국세력의 우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난해 분열주의세력의 도전은 매우 심오하고 악랄하였는데 그것은 6. 15 이후 전례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로 하여 북남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그에 대한 내외의 우려도 매우 컸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2012년에 강성대국건설목표를 기어 달성하기 위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 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한 현실에서 통일강성대국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그들은 우리 근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불철주야의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겨레가 세계를 이어 넘나드는 리상국의 표계가 날에 날마다 다가오고있다. 《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우리 공화국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경제강국건설에서의 사변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남과 서방이 《북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수준이 상상상을 초월한다.》고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는것은 당면 현실을 낚은 비결을 이남과 서방의 시각으로 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으니 세인들이 한결 같이 말하고있듯이 온 겨레는 《신비의 나라》, 《기적창조국》이라고 부를수 있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는 신비의 도술을 가지고 불

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위용을 과시해왔다. 자력의 도술로 세계를 주름잡은 북이 오늘날은 세상을 깜짝 놀래우며 과학기술의 첨단을 돌파하는 강국의 위력을 만방에 시위하고있다.》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발전소들과 현대적인 공장들이 련이어 일어났고있으며 최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있다. 드디어 우리 겨레가 세계를 이어 넘나드는 리상국의 표계가 날에 날마다 다가오고있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우리 공화국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경제강국건설에서의 사변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남과 서방이 《북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수준이 상상상을 초월한다.》고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는것은 당면 현실을 낚은 비결을 이남과 서방의 시각으로 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으니 세인들이 한결 같이 말하고있듯이 온 겨레는 《신비의 나라》, 《기적창조국》이라고 부를수 있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는 신비의 도술을 가지고 불

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위용을 과시해왔다. 자력의 도술로 세계를 주름잡은 북이 오늘날은 세상을 깜짝 놀래우며 과학기술의 첨단을 돌파하는 강국의 위력을 만방에 시위하고있다.》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발전소들과 현대적인 공장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으며 최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있다. 드디어 우리 겨레가 세계를 이어 넘나드는 리상국의 표계가 날에 날마다 다가오고있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우리 공화국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경제강국건설에서의 사변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남과 서방이 《북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수준이 상상상을 초월한다.》고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는것은 당면 현실을 낚은 비결을 이남과 서방의 시각으로 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으니 세인들이 한결 같이 말하고있듯이 온 겨레는 《신비의 나라》, 《기적창조국》이라고 부를수 있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는 신비의 도술을 가지고 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2012년에 강성대국건설목표를 기어 달성하기 위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 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한 현실에서 통일강성대국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그들은 우리 근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불철주야의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겨레가 세계를 이어 넘나드는 리상국의 표계가 날에 날마다 다가오고있다. 《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우리 공화국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경제강국건설에서의 사변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남과 서방이 《북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수준이 상상상을 초월한다.》고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는것은 당면 현실을 낚은 비결을 이남과 서방의 시각으로 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으니 세인들이 한결 같이 말하고있듯이 온 겨레는 《신비의 나라》, 《기적창조국》이라고 부를수 있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는 신비의 도술을 가지고 불

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위용을 과시해왔다. 자력의 도술로 세계를 주름잡은 북이 오늘날은 세상을 깜짝 놀래우며 과학기술의 첨단을 돌파하는 강국의 위력을 만방에 시위하고있다.》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발전소들과 현대적인 공장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으며 최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있다. 드디어 우리 겨레가 세계를 이어 넘나드는 리상국의 표계가 날에 날마다 다가오고있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우리 공화국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경제강국건설에서의 사변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남과 서방이 《북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수준이 상상상을 초월한다.》고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는것은 당면 현실을 낚은 비결을 이남과 서방의 시각으로 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으니 세인들이 한결 같이 말하고있듯이 온 겨레는 《신비의 나라》, 《기적창조국》이라고 부를수 있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는 신비의 도술을 가지고 불

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위용을 과시해왔다. 자력의 도술로 세계를 주름잡은 북이 오늘날은 세상을 깜짝 놀래우며 과학기술의 첨단을 돌파하는 강국의 위력을 만방에 시위하고있다.》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발전소들과 현대적인 공장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으며 최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있다. 드디어 우리 겨레가 세계를 이어 넘나드는 리상국의 표계가 날에 날마다 다가오고있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우리 공화국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경제강국건설에서의 사변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남과 서방이 《북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수준이 상상상을 초월한다.》고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는것은 당면 현실을 낚은 비결을 이남과 서방의 시각으로 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으니 세인들이 한결 같이 말하고있듯이 온 겨레는 《신비의 나라》, 《기적창조국》이라고 부를수 있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는 신비의 도술을 가지고 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2012년에 강성대국건설목표를 기어 달성하기 위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 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한 현실에서 통일강성대국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그들은 우리 근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불철주야의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겨레가 세계를 이어 넘나드는 리상국의 표계가 날에 날마다 다가오고있다. 《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우리 공화국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경제강국건설에서의 사변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남과 서방이 《북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수준이 상상상을 초월한다.》고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는것은 당면 현실을 낚은 비결을 이남과 서방의 시각으로 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으니 세인들이 한결 같이 말하고있듯이 온 겨레는 《신비의 나라》, 《기적창조국》이라고 부를수 있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는 신비의 도술을 가지고 불

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위용을 과시해왔다. 자력의 도술로 세계를 주름잡은 북이 오늘날은 세상을 깜짝 놀래우며 과학기술의 첨단을 돌파하는 강국의 위력을 만방에 시위하고있다.》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발전소들과 현대적인 공장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으며 최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있다. 드디어 우리 겨레가 세계를 이어 넘나드는 리상국의 표계가 날에 날마다 다가오고있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우리 공화국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경제강국건설에서의 사변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남과 서방이 《북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수준이 상상상을 초월한다.》고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는것은 당면 현실을 낚은 비결을 이남과 서방의 시각으로 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으니 세인들이 한결 같이 말하고있듯이 온 겨레는 《신비의 나라》, 《기적창조국》이라고 부를수 있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는 신비의 도술을 가지고 불

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위용을 과시해왔다. 자력의 도술로 세계를 주름잡은 북이 오늘날은 세상을 깜짝 놀래우며 과학기술의 첨단을 돌파하는 강국의 위력을 만방에 시위하고있다.》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발전소들과 현대적인 공장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으며 최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있다. 드디어 우리 겨레가 세계를 이어 넘나드는 리상국의 표계가 날에 날마다 다가오고있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우리 공화국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경제강국건설에서의 사변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남과 서방이 《북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수준이 상상상을 초월한다.》고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는것은 당면 현실을 낚은 비결을 이남과 서방의 시각으로 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으니 세인들이 한결 같이 말하고있듯이 온 겨레는 《신비의 나라》, 《기적창조국》이라고 부를수 있는 도저히 측정할수 없는 신비의 도술을 가지고 불

